

# 춘추전국시기(春秋戰國時期) 회맹(會盟)의 패권질서에 대한 환원주의(還元主義) 비판

박 병 구\*

## ◀ 논문 요약 ▶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는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의 근본이다.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은 관념이 내부에서 외부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국내에서 국제로, 가정에서 세계로 이어진다고 본다. 환원주의 국제관계 이론은 국제적인 결과들을 국가적 수준 또는 국가의 하위수준에서의 구성요소들의 결합을 통해서 설명한다. 맹자는 군주의 관념과 의지를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로 간주한 환원주의자이다. 군주가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던 춘추전국 체제하에서는 군주가 독립변수가 되었다.

본고는 춘추전국시기(春秋戰國時期) 회맹(會盟)의 패권질서에 대한 환원주의(還元主義) 비판을 탐구하기 위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춘추전국시기 회맹(會盟)은 패권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는가,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였는가? 둘째, 춘추전국시기 패권체제의 불균형발전(不均衡發展)에 대해 유가는 왜 환원주의(還元主義) 접근법을 통해 비판했는가? 필자는 먼저, 회맹(會盟)의 패권안정 보장 조건에 대해 현대 국제관계이론을 차용하여 설명하였다. 그 다음, 회맹의 패권질서에 대한 환원주의의 비판의 내용을 유가의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 주제어: 춘추전국시기, 내성외왕, 유가, 패권질서, 환원주의

(논문투고일: 2010.05.08, 심사완료일: 2010.06.07, 게재결정일: 2010.06.15)

\* 칭화대(清華大) 중한역사문화연구소(mayson2@hanmail.net)

## I. 서언

서주(西周)시기 중국은 노예사회의 전성기였다. 서주(西周)는 노예주 귀족의 특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정전제(井田制)(『孟子集注·滕文公上』: 商人始爲井田之制…), 정치적으로는 분봉제(分封制)(『左傳·僖公二十四年』: 昔周公弔二叔之不咸, 故封建親戚蕃屏周), 권력승계 관계에서는 종법제(宗法制)(『左傳·桓公二年』: 故天子建國, 諸侯立家, 卿置側室, 大夫有貳宗, 士有隸子弟, 庶人工商各有分親, 皆有等衰)를 실행하였다. 서주(西周)는 예(禮)와 악(樂)으로써 천하를 다스렸고, 덕치(德治)가 정권 생존의 조건이었다. 예(禮)의 기본 정신은 질서이다. 악(樂)의 기본 정신은 조화이다. 춘추시기, 서주(西周)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실행했던 종법제(宗法制)와 예악제도(禮樂制度)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주(周) 왕실이 쇠락하고, 제후 간 패권 쟁탈이 심화되었으며, 기존의 사회질서와 정치규범이 상실되어 천하무도(天下無道)의 사회로 빠져들었다. 서주(西周)시기에는 예악정벌(禮樂征伐)을 오직 천자(天子)만이 할 수 있었다(『論語·季氏』: 天下有道, 則禮樂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 則禮樂征伐自諸侯出, 自諸侯出, 盖十世希不失矣; 自大夫出, 五世希不失矣; 陪臣執國命, 三世希不失矣, 天下有道, 則政不在大夫, 天下有道, 則庶人不義).<sup>1)</sup> 그러나 천하무도(天下無道)의 춘추전국시기에는 천자(天子)<sup>2)</sup>가 아니라, 제후(諸侯)가 예악(禮樂)을 정벌하였다. 유가는 천하무도(天下無道)에 대해 심각한 불만과 우려를 표하고, 천하유도(天下有道)의 정상적인 사회질서로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유가의 학설이 단기간 국력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제후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유가 사상가들은 자신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춘추전국시기의 역사성격·사회구조·제후(諸侯)의 의식구조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다중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형성된 것이다. 제후

1) 禮樂征伐自天子出은 역사의 현실이 아니라, 관념상 주천자(周天子)의 권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리우쩌화(劉澤華) 1992: 12).

2) ‘천자(天子)’ 용어는 성왕(成王)이후, 주왕(周王)이 직접 ‘천자(天子)’ 혹은 하늘의 ‘원자(元子)’로 존칭되었다. 이렇게 주왕(周王)은 신(神)과 인(人)의 일체적 존재가 되었다(리우쩌화(劉澤華) 1992: 13).

(諸侯) 간 패권전쟁이 한창이던 춘추전국시기, 제후는 당시의 국내정세·사회구조·국민(國人)의 의식형태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았으나, 춘추전국시기의 정치체제는 제후(諸侯)의 권위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제후(諸侯)의 문제 해결 방식과 태도가 체제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군주(君主)가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던 춘추전국 체제하에서는 군주(君主)의 의지와 관념이 외교정책 결정에 중요한 독립변수가 되었다.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는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의 근본이다.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은 환원주의(還元主義) 접근방식이다. ‘내성외왕(內聖外王)’은 내부에서 외부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국내에서 국제로, 가정에서 세계로의 조화이다(박병구 2009). 환원주의(還元主義) 국제관계 이론은 국가적 수준 또는 국가의 하위수준에서의 구성요소들의 결합을 통해서 국제적인 결과들을 설명한다. 환원주의(還元主義)는 내적인 힘들이 외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한다. 즉, 구성 부분들의 행위에 관한 이론이다(박건영 2000: 97).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일컬어 ‘안에서 밖으로의 설명(inside-out explanation)’이라고 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케네스왈츠(Kenneth Waltz)는 ‘밖에서 안으로의 설명(outside-in explanation)’을 기도하고 있다(박재영 2000: 120).

본고는 춘추전국시기(春秋戰國時期) 회맹(會盟)의 패권질서에 대한 환원주의(環元主義) 비판을 탐구하기 위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춘추전국시기 회맹(會盟)은 패권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는가,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였는가? 둘째, 춘추전국시기 패권체제의 불균형발전(不均衡發展)에 대해 유가는 왜 환원주의(環元主義) 접근법을 통해 비판했는가? 필자는 먼저, 회맹(會盟)의 패권안정 보장 조건에 대해 현대 국제관계이론을 차용하여 설명하였다. 그 다음, 회맹의 패권질서에 대한 환원주의의 비판의 내용을 유가의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 II. 춘추전국 체제의 변화

주(周) 왕조 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봉건정체(封建政體)의 창건이다. 봉건은 ‘봉방건국(封邦建國)’의 간칭이다. 주(周) 왕조 이전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 대량의 미개발지가 있었고, '성방방국(城邦邦國)'의 주권의식 역시 성(城)의 테두리 범위 내에 국한되었다. 봉건(封建)의 의미는 정치조직의 형식으로 국토자원의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다. 봉건(封建)은 먼저, 주권영토의 확정이다. 주(周) 왕조의 창건 초기 대량의 귀족과 공신을 각국의 영주로 봉하였다. '봉(封)'의 최초의 뜻은 배토(培土)였다. 흙을 쌓는 방법으로 경계를 구획했으며, 폐쇄된 '국(國)'으로 확정되었다. 봉건은 봉국(封國)으로 하여금 토지·밭·인민을 가진 실체가 되게 했으며, 여기에 이르러 영토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저우시편(周時奮) 2006: 11). 주(周) 왕조가 방(邦)을 봉(封)할 때, 이들 제후국들은 명의상 지위가 평등하였다. 누구도 누구를 관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봉국(封國)의 면적과 국군(國君)의 작위(爵位)는 오히려 달랐으며,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5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봉국(封國) 아래에는 부용국(附庸國)이 있었고, 중앙정부에 직속되지 않았으며, 큰 봉국(封國)에 직속되었다. 대략 봉(封)된 후국(侯國)이 특히 많았기 때문에, 각국은 일반적으로 제후(諸侯)로 칭해졌다(저우시편(周時奮) 2006: 12; 『禮記·王制』: 王者之制爵祿, 公, 侯, 伯, 子, 男, 凡五等. 諸侯之上大夫卿, 下大夫, 上士, 中士, 下士, 凡五等; 『孟子·萬章下』: 天子一位, 公一位, 侯一位, 伯一位, 於, 子男同一位, 凡五等也. 君一位, 卿一位, 大夫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下士一位, 凡六等). 제후(諸侯)는 주왕(周王)에게 공납(貢納)을 바치고, 신속관계(臣屬關係)를 유지했다. 주왕실(周王室)과의 혈연관계 여부에 따라, 동성(同姓) 제후와 이성(異姓) 제후로 나뉘었다.

<표-1> 제후 등급(저우시편(周時奮) 2006: 12)

등급(等級)	국군작위(國君爵位)	실례
1등급(1等國)	공(公)	송국(宋國)
2등급(2等國)	후(侯)	진국(晉國)
3등급(3等國)	백(伯)	정국(鄭國), 신국(申國)
4등급(4等國)	자(子)	초국(楚國), 황국(黃國)
5등급(5等國)	남(男)	허국(許國)
부용국(附庸國)		주국(邾國), 극국(極國)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춘추시기는 통치계급이든 피통치계급이든 모두 엄격한 등급으로 나뉘어졌다. 통치계급의 최상위층에서 피통치계급의 최하위층까지 상하 간 등급은 분명했으며, 월권할 수 없었다(뤼윈유(呂文郁) 2007: 73).

서주(西周)시기 주천자(周天子)가 다스리는 천하(天下), 제후(諸侯)가 통치하는 국(國), 경대부(卿大夫)의 관할 범위인 가(家)는 연속체였으므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국제관계와 국제질서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였다. 서주(西周)시기 ‘국(國)’은 오늘날의 지리적·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주(周)나라 천자(天子)가 다스리던 ‘제후국(諸侯國)’이었다(리우장용(劉江永) 2009). 춘추전국시기 제후국(諸侯國)은 명의상 주왕실(周王室)의 봉국(封國)이었으나, 통치자(統治者)·군대(軍隊)·영토(領土)가 있었고, 각 관할 영토를 유효하게 통치하였기에 사실상 독립국가였으며, 또 외교권이 있었기 때문에 제후국간 상호관계는 국가 간의 외교관계였다. 그래서 제후국들은 상호 ‘외국(外國)’·‘외방(外邦)’이라 칭하였다. 춘추(春秋) 242년의 교방(交邦)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각 제후국의 지위는 불평등하였다. 소국은 대국에 대해서 공부(貢賦)를 납부하였고, 출병하여 참전했으며, 심지어 노역(勞力)까지 해야 했다. 둘째, 주례(周禮)의 원칙이 시종 준수되었다. 셋째, 전쟁 특히 징벌성 전쟁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전쟁이 각 방국(邦國)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넷째, 패주(霸主) 정치가 성행하였다. 패주(霸主)는 회(會)·맹(盟) 등 의례(儀禮)를 이용하여 소국에 대해 무력과 시혜(施惠)를 병행하였다(『國語·齊語』: 拘之以利, 結之以信, 示之以武). 패주(霸主)의 출현·패주(霸主) 정치의 실행이 비록 각 제후국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패주(霸主)는 대국이 소국을 병합하는 상황을 막았고, 소국도 패주(霸主)의 존재를 반대하지 않았다(쉬제링(徐杰令) 2004: 20-26). 일례로, 정국(鄭國)은 진(晉)과 초(楚) 양대 패권 국가사이에 처해 있었고, 국토는 좁으며, 국력이 미약하였으므로, 멸망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내정외교를 선(善)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정국(鄭國)의 자산(子産)은 집정 후, 제후회맹에 참석하였을 때 그의 연사는 대단히 신중하였다(판원란(范文瀾) 1964: 198-199; 『論語·憲問』: 爲命, 裨諶草創之, 世叔討論之, 行人子羽修飾之, 東里子産潤色之).

춘추전국시기(春秋戰國時期, 기원전 770년-기원전 221년)의 천하체계와 현대 국제체계는 성질이 다르다. 춘추전국시기 주(周)나라와 제후국 간의

관계는 등급체계였고, 제후국 간 국력의 차이는 제후국간 등급 차이를 결정하였다. 반면, 현대 국제체계는 비록 무정부상태이지만, 국제사회가 등급사회(等級社會)는 아니며, 주권국가들은 평등한 국제정치행위체(國際政治行爲體)이다. 춘추전국(春秋戰國) 체제는 주(周) 왕실과 제후국간의 불평등한 권력구조; 생존과 패권쟁탈을 위한 각 제후국들 간의 합종(合縱)과 연횡(連橫); 제후국 간 힘의 불균형이 가져온 패권전이(霸權轉移)가 특징이었다. 춘추전국 체제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변증법적 과정이었고 급진적이며 전면적 변화였다. 춘추전국 체제 변화는 크게 제후국 내부의 변화와 제후국 간 외부의 변화로 나뉜다. 내부의 변화는 제후국의 종합국력의 변화이다. 외부의 변화는 제후국 간 힘의 역학관계의 변화이다. 외부 변화에 대해 말하자면, 잔혹한 패권전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각국은 이익과 관련된 회맹(會盟)을 결성하여 합종(合縱)과 연횡(連橫)의 정치 구도를 형성하였다. 회맹(會盟)으로 인해 대국은 더욱 더 강력해졌고, 소국은 대항력을 상실하였다.

자오딩신(趙鼎新 2006)은 춘추전국(春秋戰國) 체제 변화를 패권기(霸權期: 기원전 770년-기원전 546년); 전환기(轉換期: 기원전 546년-기원전 419년); 전쟁기(戰爭期: 기원전 419년-기원전 221년)로 나누었다(자오딩신(趙鼎新) 2006: 45). 춘추 패권기(霸權期: 기원전 770년-기원전 546년)는 주(周) 왕실의 붕괴와 제후국들의 국력이 상승하던 시기였다. 춘추시기, 열국(列國)간의 쟁패 때문에 중원(中原) 내부는 늘 불안하였고, 그 결과 서융(西戎)·북적(北狄)의 침략이 잦아졌다. 춘추시기, 제후들은 주(周) 왕실을 받들고 다른 제후들을 규합하여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물리치는 것을 통치권력의 정당성으로 삼았다. ‘양이(攘夷)’를 위해서는 먼저 ‘존왕(尊王)’을 해야 했고, ‘존왕(尊王)’의 기치 아래 중원 내부가 단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존왕(尊王)’과 ‘양이(攘夷)’는 일치된 정책이었다. 이것은 춘추 초기의 시대적 필요였으며, ‘존왕양이(尊王攘夷)’는 제환공(齊桓公)과 관자(管子) 두 사람의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동슈예(董書業) 2006: 159).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이상을 실현한 제후가 패자(霸者)되었다. 춘추 패권체제(霸權體制)는 패자(霸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춘추시기 패자(霸者)는 주(周)나라 천자가 속국(屬國)을 대하듯이 부단히 자신이 통제하는 소국(小國)의 내정(內政)을 조종하고자 하였다. 춘추 패권질서 하에서 패자(霸者)는 속국(屬國)의 안전을 보장하고, 속국(屬國)의 왕위계승·정권교체·외교 등 일련의 사무에 대해

간섭과 통제를 하였다. 춘추시기 주(周) 왕실과 제후국간의 관계는 충돌과 협력의 상호작용 관계였다. 춘추 패권기(霸權期) 일부 제후국들이 중원(中原)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드러내었으나, 주(周) 왕실의 권위가 아직 건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제후국들의 전략목표는 천하 통일의 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제후국을 지배할 수 있는 지역 패자(覇者)가 되는 것으로 스스로 한계를 지웠다(자오딩신(趙鼎新) 2006: 45).

전국시대(戰國時代) 전쟁기(戰爭期: 기원전 419년-기원전 221년)에 접어들면서 주(周)나라 종법제(宗法制)의 혈연관계가 희박해짐에 따라 제후국간 전쟁의 목적은 종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산수단인 토지와 노동력(백성)을 빼앗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다(바이쇼우이(白壽彝) 1994: 874). 전국시대 전쟁기 제후국들은 일단 지역성 패권을 장악하면, 곧 자신의 세력과 영향력을 중원(中原)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중원(中原) 지역은 당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으며, 주(周) 나라 수도인 서안(西安)이 있었기 때문에 중원(中原)을 장악하는 것은 제후국들의 필수적인 지형학 전략이었다(자오딩신(趙鼎新) 2006: 57). 이것이 바로 중원(中原) 지역 이외의 제(齊)나라·진(秦)나라·초(楚)나라가 계속해서 중원(中原)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을 감행한 이유였다.

### III. 춘추전국 패권의 조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정치발전·정치안정을 보장한다. 그러나 춘추전국시기 경제성장에 따른 정치발전은 구조적으로 불균형발전이었다. 왜냐하면, 춘추전국시대의 제후들은 개인의 수양보다 패권 장악을 위한 생산력 확대; 개혁과 변법; 회맹을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춘추전국시기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을 하였으며, 품행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인간의 본질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인성에 가장 근접한다(박병구 2009). 인정(仁政)과 왕도(王道)를 실행하여 장기적인 안정을 얻을 것인가? 권술(權術)과 패권전쟁을 감행하여 자신의 영토를 신속히 확장할 것인가? 이러한 시대 환경은 군주(君主)에게 거대한 도전이었다. 춘추전국시기 비록 주(周) 왕실이 권위로써 각 제후왕(諸侯王)의 '개별의지(個別意志)'를 조정하려했으나, 제후국들 간 패권전쟁을

제지할 수는 없었다. 춘추전국시기 제후국들의 최대 관심사는 본국의 안보와 영토 확장이었다. 이를 위해 제후국들은 내부적으로 개혁과 ‘변법(變法)’을 실시하고, 외부적으로는 ‘회맹(會盟)’을 결성하였다.

## 1. 생산력 확대

국가의 생산력 확대는 국력의 체현(體現)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초이며, 역사 발전의 근원이다. 인류사회의 생산관계와 생산기초는 부단한 변화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급 간 모순이 존재한다. 역사유물주의(歷史唯物主義)는 계급을 경제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산물로 본다. 권력이 절대적으로 지배한 고대 중국 사회의 계급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간의 관계였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자본가 계급과 같이 경제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고대 중국의 경제적 계급관계는 아주 모호하였고, 정치적 신분의 등급 관계가 분명하였다(리우쩌화(劉澤華) 외 2005: 88).

노예사회의 노예는 토지가 없었고, 자유도 없었다. 봉건사회의 농민은 일정한 토지가 있었고, 노예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가 있었으나,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춘추전국시대의 경제적인 풍요는 제후들에게 사육의 팽창을 초래케 하였고, 정치적인 마찰을 야기하였다. 춘추전국시대의 정치적 격동은 농업생산력의 향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경작지의 개발은 토지소유권의 불균형과 계급 간 모순을 격화시켰다. 생산력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구시대의 노예제 생산관계는 생산력 제고에 장애가 되었다. 그 결과 신흥 지주계급이 점차 노예주 계급의 지위를 대체하기 시작하였고, 봉건사회가 점차 형성되었다. 봉건시대 생산력은 토지에 의존하였다. 그래서 전국시기 출현한 신흥 봉건지주계급은 토지 확대를 희망하였다. 신흥 지주계급의 정치적 힘이 강해졌고, 제후 간 패권쟁탈이 심화되었다. 결국 노예주 통치의 주(周) 왕실은 갈수록 쇠락해지고 구(舊) 정치질서는 붕괴되었다(왕푸취(王浦劬) 1995: 34).

춘추전국시기 제후(諸侯)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성장을 조기에 달성하여, 강력한 경제력의 기초위에 군사력을 통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외부와의 부단한 연관성과 투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겸병전쟁은 중앙집권의 필요과정이었었고, 봉건지주 계급의 정치가들은 부국강병을 주장하며, 토지개간을 장려하였다. 춘추시기, 황무지 개간



사업의 확대로 공전(公田)이외에 사전(私田)이 출현하자, 사전(私田)은 처음에 국가에 납세를 하지 않았다. 사전(私田)이 많아질수록 제후들은 공전(公田)에 대한 세수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제후들은 제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을 구분하지 않고, 전 토지를 측량하여 경작지 수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 중, 제(齊)나라 관자(管子)가 창립한 ‘상지이쇠정(相地而衰征)’<sup>3)</sup>과 기원전 594년, 노(魯)나라가 실시한 ‘초세무(初稅畝)’<sup>4)</sup>등이 개혁의 대표적 예이다(구더렁(顧德融) 외 2001: 73-74). ‘초세무(初稅畝)’는 실질적으로 토지사유를 묵인하여 토지국유제를 토지사유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였다(장추안시(張傳璽) 1991: 102). 사전(私田)의 합법화와 조세제도의 개혁은 전통적인 정전제(井田制)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상지이쇠정(相地而衰征)’과 ‘초세무(初稅畝)’는 모두 봉건 지주계급의 정치사상과 노예제 사상 체계의 대립을 설명하는 것이다.

## 2. 개혁과 변법

춘추시기(春秋時期), 제환공(齊桓公)의 지지 하에 관자(管子)는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일련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관자(管子)는 인간의 경제생활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도덕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잠재적 대국의 군사력 강화는 반드시 경제발전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管子·治國第四十八』: 凡治國之道, 必先富民, 民富則易治也, 民貧則難治也). 공자(孔子)는 관자(管子)의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였다(『論語·憲問』: 管仲相桓公, 霸諸侯, 一匡天下, 民到於今受其賜, 微管仲, 吾其被發左衽矣). 왜냐하면, 관자(管子)의 유효한 정치·경제 정책은 백성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경제·문화생활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공자(孔子)는 주(周)나라의 구질서와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당시 파괴된 경제기초를 회복하고, 백성들의 경제안정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더 중요시하였다.

관자(管子)의 첫 번째 임무는 제(齊)나라의 부국강병이었다. 관자(管子)는 국가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집·나무·

3) 토지의 다소(多少)·질(質)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4) 황무지를 개간하여 초기에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면 개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는 것으로서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인두세를 징수하면, 국민들은 반발할 것이고, 생산 방해와 재산상에 손실을 가져온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관자(管子)는 국가가 산과 바다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소금과 철을 전매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관자(管子)는 염업(鹽業) 산업을 발전시켜 제(齊)나라를 '해상왕국'으로 만들었다(쉬홍루(徐鴻儒) 2005: 48-49; 『史記·齊太公世家』: 太公望呂尚者, 東海上人). 그 다음, 관자(管子)는 왕도(王道)를 강조하고 패권(霸權)을 반대하였다. 전쟁을 해야 할지 여부는 이익과 피해를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管子·法法第十六』: 貧民傷財, 莫大於兵; 危國憂主, 莫速於兵). 왜냐하면, 춘추시기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왕도(王道)를 보좌하고 패업(霸業)을 달성하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자(管子)는 패권국과 왕도국(王道國)이 원정(遠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소국이 대국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참전하는 것도 반대하였으며, 정의로운 전쟁을 주장하였다(『管子·霸言第二十三』: 夫國小大有謨, 強弱有形. 服近而強遠, 王國之形也; 合小以攻大. 敵國之形也).

전국시기(戰國時期), 신흥지주계급의 경제력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정치력도 점차 강대해졌으며, 제후 간 쟁패도 격렬해졌다. 반면, 노예주 통치의 주(周)왕실은 갈수록 쇠락해졌다. 장기간의 투쟁을 거쳐서 전국시기(戰國時期)에 이르러서는 신흥지주계급은 정권을 이용하여 변법(變法)을 진행하고 세계세록(世卿世祿) 제도를 말살하였으며, 군주(君主)를 우두머리로 하는 봉건관료 제도를 확립하였다(리종케이(李宗桂) 1997: 75). 전국시기(戰國時期), 진(秦)나라는 상양(商鞅), 위초(魏楚)는 오기(吳起), 제(齊)나라는 손자(孫子)와 전기(田忌)를 중용하여 변법(變法)을 실시하고 노예제를 개혁하였으며 봉건제를 공고화하였다. 위(魏)나라 사람 상양(商鞅)은 진(秦)나라에 와서 기원전 356년, 진효공(秦孝公)께 개혁을 건의하였다. 상양(商鞅)의 변법은 노예주 귀족의 특권을 폐지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신흥지주계급의 중앙집권통치를 강화하였다. 전국시기(戰國時期), 변법(變法)은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시행된 개혁(改革)의 기초위에서 진행되었으며 춘추시대(春秋時代)보다 더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전국시기(戰國時期)의 변법(變法)은 모두 제후왕과 국가이익을 위주로 하였고, 통치 계급에서 시작한 위로부터의 개혁(改革)이었다. 변법(變法)의 목적은 국력을 증강시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으며, 백성들의 복리를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 그 결과 변법(變法)은 잔혹한 검병전쟁을 초래하였으며, 전쟁은

공리성(功利性)이 충만하였다. 맹자(孟子)는 국가 주도의 위로부터의 변법(變法)은 폭력적이고, 정당성이 없으며, 분권적인 인정(仁政)과 많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전국시기(戰國時期) 각국의 변법(變法)은 구(舊) 제도를 와해시켰고, 신흥지주계층의 지위를 강화하였으며, 진(秦)의 중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 IV. 회맹의 패권질서

춘추시기(春秋時期),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연합 작전을 펼쳤고, 강대국은 자신의 실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소국을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오도록 급박하였다. 이 모두를 회맹(會盟)이라 칭하였다 (『左傳·昭公三年』: 令諸侯三歲而聘, 五世而朝, 有事而會, 不協而盟; 『史記·齊太公世家贊』: 桓公之盛, 修善政, 以爲諸侯會盟稱伯, 不亦宜乎). 회맹(會盟)은 서주(西周)와 춘추시대 중요한 방교예의(邦交禮儀)였다. 회(會)는 회동(會同), 맹(盟)은 맹서(盟誓)의 의미이다. 서주(西周)시기, 방교예의(邦交禮儀)로서 회맹(會盟)은 회동(會同)때 항상 열렸다. 회동(會同)은 주대(周代) 빈례(賓禮)에 속하였다. 춘추시기 회맹(會盟)은 빈번하였고, 수량도 많았으며, 관련된 방국(邦國)도 많았다. 패자(覇者)는 패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맹(會盟)을 이용하였다. 패자(覇者)가 회맹(會盟)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집단을 결성하였다. 이로써 기타 제후국·군사집단과 대항하였다. 예를 들어, 제(齊)나라와 정(鄭)나라가 연합한 ‘노지맹(盧之盟)’은 노(魯)나라와 송(宋)나라가 체결한 ‘숙지맹(宿之盟)’에 대항하였다. 이러한 회맹(會盟)의 결과로 전쟁이 계속 확대되었다. 둘째, 패주(覇主)는 상관 법령을 반포하였다. 셋째, 타국과 화약(和約)을 체결하고, 방교(邦交) 관계를 조화하였다. 넷째, 원래 본 집단에 속하지 않은 방국(邦國)의 가입을 수용하였다. 다섯째, 본국(本國)의 왕위를 계승한 국군(國君)은 기타 제후의 승인을 받았다. 제후는 회맹(會盟)을 통해서, 왕위계승자의 지위를 승인하였다. 여섯째,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제후국 간에는 관념상의 ‘제하(諸夏)’ 사상이 있었고, 형제관계였기 때문에 제후 간 타국의 내부 사무에 대한 간섭은 대단히 보편적이었다. 일곱째, 제후를 조직하여 재난을 당한 제후에 대해 구휼책을 진행

하였다. 여덟째, 방교(邦交) 질서를 파괴하는 제후를 징벌하였다(쉬제링(徐杰令) 2004: 85-99).

기원전 546년을 춘추시기 패권기(霸權期)와 전환기(轉換期)의 분수령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기원전 546년은 당시 양대 적대적 국가인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다른 10여 개 소국들과 상구(商丘)에서 회맹(會盟)을 맺고 휴전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자오당신(趙鼎新) 2006: 46). 이를 역사적으로 '상구회맹(商丘會盟)'이라 칭한다. 기원전 655년, 주(周) 왕실이 내홍을 격자, 제환공(齊桓公)은 제후들과 연합하여 태자(太子) 정(鄭)의 지위를 보호하였다. 또 훗날 태자(太子) 정(鄭)을 주양왕(周襄王)으로 옹립하였다. 기원전 651년, 제환공(齊桓公)은 중국 남방에서 흥기해 대륙 중원(中原)으로 북상하여 중원(中原)의 여러 약소국을 위협하던 초(楚)나라로부터 중원(中原)을 구했으며, 규구(葵丘)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8개 제후국들과 '규구회맹(葵丘會盟)'의 동맹(同盟)을 결성하였다. '규구회맹(葵丘會盟)' 내용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불효하는 제후(諸侯)와 대부(大夫)의 자손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고, 이미 결정된 태자(太子)는 쫓아내지 않으며, 소첩(小妾)을 정처(正妻)로 세우지 않는다; 지식을 숭상하고, 인재를 존중하며, 덕과 재능을 갖춘 사람을 배양하며, 도덕을 숭상하는 사람을 표창한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 아이를 사랑한다; 예를 갖추어 사람을 대하고, 손님을 열정적으로 접대한다; 사인(士人)의 관직은 세습할 수 없고, 관직은 겸직이 불가능하며, 선발된 간부는 반드시 적실해야 하며, 간부에 대한 처벌은 신중해야 하고, 국군(國君)은 단독 결정으로 대부(大夫)를 사형시킬 수 없다; 각국 경내에 제방을 어지럽게 쌓아서 안 되고, 수자원을 독점해서도 안 되며, 각국 간의 경제 무역 교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맹약(盟約)에 참가한 모든 제후국들은 맹약(盟約)이 효력을 발생한 후, 반드시 일치단결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일치된 행동을 한다(『孟子·告子下』: 初命曰: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 再命曰: '尊賢育才, 以彰有德.' 三命曰: '敬老慈幼, 無忘賓旅.' 四命曰: '士無世官, 官事無攝, 取士必得, 無專殺大夫.' 五命曰: '無曲防, 無遏糴, 無有封而不告.' 曰: '凡我同盟之人, 既盟之後, 言歸於好.').

규구회맹(葵丘會盟)은 명확한 협의(協議)가 있었고, 맹약 내용을 성문화(成文化)하였으며, 구체적인 법률(法律)과 도덕의무(道德義務)를 포함하였다; 조약(條約)의 형식으로 제후국 간 공동목표를 확정하였다; 제후국 상호간의 긴밀함 정도가 어떤 형식의 협력관계보다 더 초월하기 때문에 결

맹국 간 공동가치관을 체현하고, 공동이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춘추전국시대 패권국가가 대다수의 자원을 장악하였지만, 패권국가가 임의대로 자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관례를 준수해야 했으며, 회맹(會盟)을 통해서 패자(覇者) 역시 상응하는 구속을 받았다. 제환공(齊桓公)은 주(周)나라 천자(天子)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고 공동방어를 주도하였다. 패자(覇者)는 종교 활동 이외에 모든 활동을 주관하였다. 춘추시기 소국이 회맹(會盟)을 맺는 것은 생존의 필요조건이었고, 대국(大國)이 회맹(會盟)을 추구하는 것은 패권전략의 목표였다. 빈번한 전쟁이든 합종연횡(合縱連橫)이든 제후국간 교류의 목적은 자신의 국력을 증강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춘추시기는 대국과 소국 간의 패권(覇權)·사대(事大)관계가 더욱 많이 체현(體現)됐고, 회맹(會盟)관계의 기초 하에, 패권 중심의 지정학적 정치관계가 형성되었다.

춘추시기(春秋時期), 주(周) 왕실은 여전히 제후들의 심중에 정통(正統)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후(諸侯)들은 주(周)나라 천자(天子) 주양왕(周襄王)이 자신들에게 패자(覇者)의 지위를 인정해주길 원했다. 제후국이 중원(中原)의 패권을 장악하려면, 먼저 주(周) 왕실을 무너뜨려야 했고, 또한 당시 여전히 영향력이 있던 주(周) 왕실의 권위를 이용해야 했다.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춘추시기, 제후국들은 이적(夷狄)의 중원(中原) 진출을 저지하였고, 제(齊)나라는 주(周)왕실을 구하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규구회맹(葵丘會盟)을 체결한 후, 제(齊)나라는 군사적으로 주도적인 지위를 점한 동시에 공주(共主)의 자격을 얻었다. 규구회맹(葵丘會盟)때 주(周)나라 천자(天子) 주양왕(周襄王)은 사신(使臣) 재공(宰孔)을 보내 제환공(齊桓公)을 제후(諸侯)의 장(長)으로 책봉(冊封)하고, 패자(覇者) 지위를 승인하였으며, 제환공(齊桓公)에게 ‘전정벌(專征伐)’의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제환공(齊桓公)은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覇者)가 되었고, 이때부터 제후가 예악정벌(禮樂征伐)을 하게 되었다(바이쇼우이(白壽彝) 1994: 932).

춘추 패자(覇者)는 회맹(會盟)을 통해서 동맹국에게 정치신뢰를 충분히 보장하였는가? 『국어(國語)』는 패주가 동맹국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國語』魯語下·子服惠伯從季平子如晉: 夫孟, 信之要也). 춘추시기, 사회관계와 정치형세에서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정치 권술(權術) 역시 신속히 발달하였다. 주(周)왕실의 쇠락과 주변 유목 민족의 중원(中原) 위협은 정치 권술(權術)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였다

(유화청(余華靑) 2006: 25). 제환공(齊桓公)은 패업을 위해 주천자(周天子)의 명예를 빌려 천하를 호령하고 제후와 회맹(會盟)하는 권술(權術)을 사용하였다(『後漢書·袁紹傳』: 挾天子以令諸侯). 회맹(會盟)이 어느 정도 인의(仁義)를 중시했다고 하나, 회맹(會盟)의 인의(仁義)와 요순(堯舜) 임금·상(商)나라 탕왕(湯王)·주무왕(周武王)의 인의(仁義)는 차원이 다르다. 요순(堯舜)과 탕왕(湯王)·주무왕(周武王)은 의식적으로 인의(仁義)를 실천하려 노력했으나, 회맹(會盟)의 맹약(盟約)은 인의(仁義)를 패업의 도구적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했다(쉬크첸(徐克謙) 2007: 23; 『管子·小匡』: 鈞之以愛, 致之以利, 結之以信, 示之以武, 是故天下小國諸侯, 既服桓公, 莫之敢倍(背)而歸之, 喜其愛而貪其利, 信其仁而畏其武)<sup>5)</sup> 맹자(孟子)는 이를 ‘춘추무의전(春秋無義戰)’(『孟子·盡心下』)이라 비난하였다. 주(周)나라 천자(天子)가 제환공(齊桓公)을 제후(諸侯)의 장(長)으로 승인한 것은 패권안정(霸權安定)과 상관성이 있다. 패주(霸主)의 존재는 체제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주(周)나라 천자(天子)는 인식하였다. 춘추시기 패권국은 회맹(會盟)을 중심으로 천하질서를 유지시켰고, 회맹(會盟)은 패권안정에 유리하였다(『史記·齊太公世家』: 三十五年夏, 會諸侯於葵丘. 周襄王使宰孔賜桓公文武胙·彤弓矢·大路, 命無拜). 그러나 제환공(齊桓公)은 회맹(會盟)을 통해서 제(齊)나라의 정치적 지위를 제고시키려 하였고, 회맹(會盟)이 비록 인의(仁義)를 기초로 했으나 가인(假仁)이었으며, 진정한 조화 세계인 평천하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평천하는 창출한 기회를 서로 공유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 패자(霸者)는 가치와 이익·기회와 자원을 독점했으며, 제후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였다. 춘추시기 패자(霸者)와 제후국 간 공동이익은 ‘존왕양이(尊王攘夷)’였고, 공동규칙은 회맹(會盟)이었다. 그러나 제환공(齊桓公)이 기치로 내건 ‘존왕양이(尊王攘夷)’는 패권을 위한 허구였고, 패도덕(悖道德)이었다. 그 결과 훗날 제후들이 맹약(盟約)을 배신하였으며, 패권전이가 발생하였다.

5) 맹자는 치국의 ‘도(道)’를 ‘왕도(王道)’와 ‘패도(霸道)’로 구분하였다. ‘덕’(德)으로써 인(仁)을 행하는 것(以德行仁)은 ‘왕도(王道)’이고, 힘으로써 거짓 인(仁)을 행하는 것(以力假仁)을 ‘패도(霸道)’라 하였다(『孟子·公孫丑上』: 以力假仁者霸, 霸必有天國;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 V. 회맹의 패권질서에 대한 환원주의 비판: 내성의왕(內聖外王)

중국 고대 철학 사상 중의 소위 ‘내(內)’와 ‘외(外)’는 세 가지 종류의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 ‘내(內)’는 주체를 가리키고, ‘외(外)’는 객체를 의미하였다. 즉 ‘내(內)’와 ‘외(外)’는 ‘자신(己)’과 ‘타인(人)’ 혹은 ‘자신(己)’과 ‘물질(物)’의 관계이다. 둘째, ‘내(內)’는 정신생활, ‘외(外)’는 물질생활을 가리킨다. ‘내(內)’와 ‘외(外)’의 관계는 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관계를 의미한다. 셋째, ‘내(內)’는 ‘덕성(德性)’을 가리키고, ‘외(外)’는 ‘사업(事業)’을 지적하였다. 즉 ‘내(內)’와 ‘외(外)’는 덕행(德行)과 사업의 관계이다(장다이니엔(張岱年) 2005: 160). 그러면, 왜 ‘내(內)’라고 하면 약속이나 한 듯이 기계적으로 ‘외(外)’를 상정하고 ‘내(內)’와 ‘외(外)’를 각각 인간의 ‘내면’과 ‘외면’으로 환치시키게 되었을까(신정근 1999)? 첫째, 전통시대 주석가들의 영향 때문이다. 한대(漢代) 이후,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서가 쓰여지면서 주석에 투영된 철학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석에는 ‘내(內)’를 ‘외(外)’와 연관 지어 마음(心)으로 풀이한다. 둘째, 중국 철학의 일반적인 특징을 양극(polarity) 개념의 선용으로 보는데 연유한다(Schwartz 1964; Hall et al. 1987: 17-21). 슈왈츠(Schwartz 1964)는 내면(inner)과 외면(outer)의 양극성은 군자의 이상 성취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두 개의 실제 영역이라고 인식하였다. 이 때의 외면은 객관적인 사회적 문화적 질서로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정·규칙·의례 그리고 습속(習俗)의 결합체로서 ‘예(禮)’와 동일시된다. 반면 내면(inner)은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문화적 질서와 고립되어 간주되는 개별 인간 존재의 본유적인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다. 나아가 슈왈츠(Schwartz 1964)는 ‘내(內)’와 ‘외(外)’를 각각 ‘인(仁)’과 ‘예(禮)’로 등치(等值)시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 의거해서 『논어(論語)』의 ‘내(內)’를 무조건적으로 ‘내심’·‘내면’으로 등치(等值)시킬 수 없다(신정근 1999). 그 이유로 첫째, 슈왈츠(Schwartz 1964) 자신도 지적하고 있듯이 ‘내-외(inner-outer)’ 양극 개념은 『맹자(孟子)·고자상(告子上)』에 소개된 맹자(孟子)와 고자(告子)의 ‘내외의외(仁內義外)’ 논쟁에서 최초로 분명한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孟子·告子上』: 告子曰: 食也, 性也; 仁, 內也; 非外也; 義, 外也非內也). 나아가 그는 두 영역, 즉 ‘내(內)’와 ‘외(外)’가 공자의 어록에 간단히

언급되었지만, 그것들의 관계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제한 조항을 단다. 『맹자(孟子)』에서 상당히 의식적으로 ‘내(內)’와 ‘외(外)’를 개인적 내면적 삶과 외적인 윤리 사회적 질서를 지칭하고 있듯이, 이들 정신적 실재(즉 자질·능력·내적인 정신적 경향)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면(inner)’은 공자(孔子)에게 결코 생소하지 않았다. 실제로 『논어(論語)』를 조사해보면, ‘내(內)’는 모두 8번 쓰이지만, ‘외(外)’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내(內)’의 짝 개념으로서 반드시 ‘외(外)’가 있어야만 ‘내외(內外)’ 분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외(外)’가 없어도 문맥상으로 ‘내(內)’만으로 ‘외(外)’를 전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용어가 ‘외(外)’를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외(內外)’ 양극 개념이 『맹자(孟子)』 단계에서 중요한 철학적 분석틀이었다면 아직 『논어(論語)』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신정근 1999).

내부를 가지고 외부를 설명하는 환원주의 접근법(박건영 2000: 102) ‘내성외왕(內聖外王)’은 고대 중국인의 인생 가치관이자 군주의 최종 목표였다. 춘추시대에 형성된 내성외왕 사상은 ‘인(仁)’ 사상과 ‘덕정(德政)’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유가는 ‘학행합일(學行合一)’·‘지행합일(知行合一)’·‘수기치인(修己治人)’의 정치사상을 강조하였다. 공자는 정치 이상적 차원에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제안하였다. ‘수기치인(修己治人)’은 오직 부단한 수양만이 덕(德)으로써 천하를 감화시킬 수 있으며, 백성을 교화시킨다는 의미이다(『論語·子路』: 苟正其身矣, 於從政乎何有? 不能正其身, 如正人何?;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은 오직 끊임없는 수양과 인격의 완성만이 예(禮)로써 천하를 감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도덕과 정치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은 공자(孔子)가 제안한 ‘기욕입이입(己慾立而立人)’(『論語·雍也』); ‘기욕달이달인(己慾達而達人)’(『論語·雍也』); ‘보시제중(博施濟衆)’(『論語·雍也』)의 인격관에서 출발하였고(거츄엔(葛筌) 2003: 29), 맹자(孟子)·순자(荀子)를 거쳐 『대학(大學)』에서 체계를 이루었다. 공자(孔子)는 ‘수치안인(修治安人)’(『論語·憲問』)의 인생 이상을 ‘내성외왕(內聖外王)’이라 인식하였다(거츄엔(葛筌) 2003: 29). 공자(孔子)는 정치권력과 사회권위를 결합하길 원했다. 통치자가 오직 정치권력만을 가지고 그의 국가를 통치하면, 그는 ‘패(霸)’로 간주된다. 정치권력과 사회권위를 하나로 일치하면 그는 ‘왕(王)’으로 추앙된다(페이샤오통(費孝通) 2006: 40).



맹자(孟子) 역시 관념과 의지를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로 간주한 환원주의자이다(孟子·盡心上：萬物皆備於我矣). 맹자(孟子)는 군주(君主)의 관념 수준의 분석으로써 국가성질과 국제체계의 변화를 환원하였다. 맹자(孟子)는 ‘인(仁)’과 ‘의(義)’가 모두 자연발생적인 ‘인의내재(仁義內在)’를 주장하였다(『孟子·盡心上』：居仁由義；『孟子·離婁下』：由仁義行，非行仁義). 맹자(孟子)는 ‘심(心)’의 자각성에 근거하여 도덕 표준을 수립하였다(『孟子·告子上』：告子曰：食也，性也；仁，內也；非外也；義，外也非內也).<sup>6)</sup> 맹자(孟子)는 인(人)과 천(天)의 관계에서 성(性)은 천명(天命)이 부여한 것이므로 인성(人性)은 선(善)하다고 주장하였다(『孟子·滕文公上』：孟子道性善，言必稱堯舜；『孟子·告子上』：人性之善也). 맹자(孟子)는 천(天)은 명(命)의 기초이고, 명(命)은 성(性)의 기초이며, 성(性)은 심(心)의 기초라고 강조하였다(『孟子·盡心上』：盡其心者，知其性也。知其性，則知天矣。存其心，養其性，所以事天也。夭壽不貳，修身以俟之，所以立命也). 인성(人性) 문제는 도덕 기원의 문제이다(장다이니엔(張岱年) 2005: 9). 혼돈의 전국시대에 표출된 모든 인성의 본질은 맹자(孟子)로 하여금 인성 문제를 깊이 사고하게 만들었다. 맹자(孟子)는 사회 체제의 붕괴가 도덕이 불신되는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주(周) 왕실의 도덕규범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배경 하에, 새로운 도덕 이론이 필요하였으며, 새로운 도덕규범을 실행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였다. 환원주의의 패권질서 비판의 이론적 근거는 맹자(孟子)가 제안한 ‘성선론(性善論)’이다. 성선론(性善論)은 인성의 도덕적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맹자(孟子)는 ‘인심(仁心)’은 인간의 본성이며, 계급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다고 인식하였다(『孟子·告子上』：惻隱之心，人皆有之；羞惡之心，人皆有之；恭敬之心，人皆有之；是非之心，人皆有之). 맹자(孟子)는 인간의 도덕실천의 근거는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에서 나온다고 인식하였다. 맹자(孟子)는 인간은 성선하므로, 모든 인간은 요순(堯舜) 임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孟子·告子下』：人皆可以爲堯舜). 그러나 현실 생활 중, 모든 인간이 사덕(四德)을 완비한 인간이 될 수 없으며, 또 요순(堯舜) 임금과 같은 그런 성군이 될 수도 없다. 맹자는 오히려 군자(君子)·서민(庶民), 대인(大人)·소인(小人), 현자(賢者)·불초자(不肖子)를 차별하였다(『孟子·離婁下』：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者也；『孟子·離婁下』：人之所以於

6) 반면, 고자(告子)는 ‘의(義)’의 내재성을 부정하였다. 고자(告子)는 오직 ‘인(仁)’만이 내재적이고, ‘의(義)’는 외재적인, 즉 ‘인내의외(仁內義外)’로 인식하였다.

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이런 현상과 맹자(孟子)의 ‘성선론(性善論)’은 모순된다. 그래서 맹자(孟子)는 성선론의 도덕 본질과 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천성적으로 선(善)을 보유하고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맹자는 이를 ‘단(端)’이라 칭하였다. 맹자(孟子)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사덕(四德)’이 아니라, ‘사덕(四德)’의 맹아 - ‘사단(四端)’이라고 주장하였다(동홍리(董洪利) 1997: 97; 『孟子·公孫丑上』: 凡有四端於我者). 오로지 수신을 통하여 ‘사단(四端)’을 부단히 확충해야만, ‘사덕(四德)’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다(『孟子·公孫丑上』: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맹자(孟子)는 만약 수양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단(四端)은 확충 될 수 없고, 비록 하늘이 인간에게 같은 기회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사단(四端)’의 확충은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맹자(孟子)는 오로지 현명한 통치자와 군자만이 ‘사단(四端)’을 유지하고 확충할 수 있고, 도덕을 완비한 대인(大人)이 될 수 있으며, 반면 피통치자들도 비록 선(善)의 맹아가 있다 하더라도, 유지에 부주의 하거나 배양하지 않으면, 영원히 소인(小人)이 된다고 강조하였다(『孟子·離婁下』: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맹자(孟子)는 군주(君主)의 행위는 ‘내성(內聖)’과 ‘외왕(外王)’ 두 방면에서 결정된다고 인식하였다. ‘내성(內聖)’은 자신의 도덕 인격이고, ‘외왕(外王)’은 도덕 실천을 추구하는 주체와 타인의 협력이다. 맹자(孟子)가 주장한 ‘내성(內聖)’은 내면의 수양이고, ‘외왕(外王)’은 외향적인 정치 주장이다(『孟子·離婁上』: 三代之得天下也, 以仁; 其失天下也, 以不仁. 國之所以廢興存亡者亦然). 맹자는 내성외왕 사상을 구체화하고, 인간의 선(善)이 곧 ‘인(仁)’이며, 치국·평천하를 실현하는 것이 곧 인정(仁政)이라고 인식하였다. 내성외왕 사상은 정치권력의 내부 정당성과 외부 정당성의 융합이다. ‘내성(內聖)’은 정치권력 내부 정당성의 근본적인 근거이고, 반면 ‘외왕(外王)’은 외부 정당성의 근거이다. 전국시기 패권질서에 대한 비판을 위해 맹자는 먼저 ‘내성(內聖)’을 제시하였다. 맹자(孟子)가 바라는 이상적인 군주(君主)는 내면의 수양(修養)을 통해서 밖으로 인정(仁政)을 펼칠 수 있는 군주(君主)였다. 맹자는 군주가 ‘내성외왕(內聖外王)’을 통해 인간의 도덕 이성이 ‘내성(內聖: 수신)’을 통하여 ‘외왕(外王: 치국·평천하)’으로 확대되어 종국적으로 대동세계(大同世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맹자(孟子)는 오로지 인격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체가 천하를 다스리는 ‘덕치(德治)’를 주장하였다(『孟子·公孫丑上』: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덕치(德治)는 내재적 힘이다. 맹자(孟子)는 정신 수양은 어떠한 외부적 인도(引導)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孟子·盡心上』: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樂莫大焉). 덕치(德治)에 기초한 평천하는 개인의 이상적 가치의 최대화이고, 개인 가치의 작용 범위가 전체 사회로 확대되며,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맹자(孟子)는 개인의 도덕 ‘수양(修養)’은 자신의 독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타인과 사회를 도덕 귀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인식하였다. 그래서 ‘수신(修身)’이 모든 정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은 국내 정치의 안정은 군주(君主)의 높은 도덕 수준과 집정 능력에 기초하고, 군주(君主)의 도덕 수준은 수신에 기초하며, 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 역시 군주(君主)의 도덕 수준에 근거한다고 강조한다. 수신은 군주가 평천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실천이고, 제가·치국은 그 두 번째 단계의 실천이며, 평천하는 도덕을 완비한 군자의 최종 목표이다(박병구 2009; 『孟子·盡心下』: 不仁而得國者, 有之矣; 不仁而得天下者, 未有之也).

## VI. 결론

유가(儒家)는 인치(人治)를 주장하고, 군주(君主)에게 의탁하길 원하였다. 유가(儒家)의 이상 사회는 가족공동체 중심의 사회이다. 그래서 유가(儒家) 사상에 ‘개체(個體)’는 존재하나 ‘개인(個人)’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크(Locke)는 천부인성(天賦人性)은 선(善)하므로, 인성(人性)은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천부인권(天賦人權)은 평등하기 때문에 정치권리도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유가(儒家)는 치자와 피치자 간의 질서를 ‘인(仁)·예(禮)’사상의 계급성(階級性)으로 인식하여 인간관계가 완전히 평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는 동주(東周) 이래의 구질서가 파괴되었고, 봉건 사회가 점차 형성되었다. 지주들도 부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군주(君主)를 소망하였다. 맹자(孟子)는 각국 군주(君主)들이 주(周)왕조의

노예제 구제도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 상황에서, 봉건제도를 강화하길 희망하였다. 비록 맹자(孟子)의 정치 입장이 당시 봉건지주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였지만, 그의 출신 배경과 공자(孔子)의 영향 때문에 노예주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공자(孔子)의 사상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었다(렌지위(任繼愈) 1999: 140). 맹자(孟子)의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 속에는 보수적인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적 사상도 내재되어 있었으며, 봉건계급 사상이 주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맹자(孟子)의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은 농후한 개량주의(改良主義)적 색채를 띠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가(法家)의 법(法)은 군주(君主) 수중에 있는 수단이었다(『韓非子·難三』: 人主之大物, 非法則術也). 법(法)의 제정과 폐지 역시 군주(君主)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법가(法家)는 군주(君主)의 권력을 초월하지 못하였다. 결국 법가(法家)의 법치(法治) 역시 인치(人治)로 귀결되었다(리우쩌화(劉澤華) 2004: 26). ‘일심흥방(一心興邦)’·‘일심상방(一心喪邦)’은 일종의 집체정치(集體政治) 심리 정식이었고, 군주(君主)의 통치에 사회심리 기초를 제공한 일종의 공동의 정치 선택 모델이었다(장펀티엔(張分田) 2004: 341).

중국정치사는 ‘내성(內聖)’과 ‘외왕(外王)’, ‘의리(義利)’와 ‘왕패(王霸)’의 충돌이었다. 원시유가(原始儒家)는 수(修)·제(齊)·치(治)·평(平), 즉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도덕입국론(道德立國論)을 제안하였다. 특히, 맹자는 패권을 반대하고(『孟子·告子下』: 五霸者, 三王之罪人也; 今之諸侯, 五霸之罪人也;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주체를 군자(君子)로 국한시켰다(『孟子·離婁下』: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중국은 통일 제국 이후, 정치가 이미 씨족(氏族) 형태를 벗어났으며, 가(家)·국(國) 역시 더 이상 봉건시대의 의의를 체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중국사회가 급변하고, 덕치(德治) 이상의 기초가 흔들렸으나, 진(秦)·한(漢) 이후의 유학자들은 여전히 원시유가(原始儒家)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사유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국 유학자들은 환원주의 접근법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 입장에서 군주(君主)를 견책(譴責)하고, 현실의 제왕(帝王)이 성군(聖君)이 되길 희망하였다(웨이정통(韋政通) 2006: 59). 시대의 변천 중, 유가의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 역시 변화와 개선을 이루었다. 비록 한(漢)·당(唐) 이전, 유학자들이 도덕 인격을 중시했으나, 실제 정치 실천에서는 ‘외왕(外王)’의 품격 즉 도덕 인격의 외재적 가치를 더 중시하였다(리황성(李晃

生) 2006: 294). 송대(宋代)이래, 유가 내부에서 ‘내성(內聖)’과 ‘외왕(外王)’ · ‘도덕주의(義)’와 ‘공리주의(利)’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런 논쟁의 배후에는 정치집단과 사회계층의 이익 재분배 문제가 존재하였다(리황성(李晃生) 2006: 140). 명(明)·청(淸)시기, 중국은 쇠국정책으로 역사 발전이 후퇴하였다. 신사상으로 무장한 유학자들은 다시 도덕 수양과 정치 이상을 결합하여 ‘외왕(外王)’ 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의 정체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정들은 청조(淸朝) 통치자들의 탄압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1840년 아편전쟁 후,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은 이미 선진시대(先秦時代)의 ‘내성외왕(內聖外王)’이 아니었다. 유학자들은 양무운동(洋務運動)의 중체서용(中體西用)에서 개혁의 도(道)를 찾기 시작했으며, ‘내성(內聖)’을 약화시키고, ‘외왕(外王)’ 사상을 더욱 더 강화하였다. 이 시기,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외왕(外王)’의 실천 역시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비록 인치(人治)를 중시하는 환원주의 접근법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이 중국식 전제군주 봉건사회를 더 연장시켰으나, 군주(君主)의 ‘내성(內聖)’은 평천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시대와 지역·국가를 초월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lt; 참고문헌 &gt;

- 박병구. 2009. “『禮記』中的和諧世界思想.” 『王霸天下思想及啓迪』.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박재영. 2000. 『국제정치 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 신정근. 1999. “고대 중국 ‘仁’ 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케네스왈츠 저. 박건영 역. 2000. 『국제정치이론』. 서울: 사회평론.
- Schwartz, B. 1964. “Some Polarities in Confucian Thought.” Arther F. Wright(ed.). *Confucianism and Chinese Civilization*. New Y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ll, D. L. and R. T. Ames. 1987. *Thinking through Confuciu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국어(國語)』. 2007. 北京: 中華書局.
- 『관자(管子)』. 2009. 北京: 中華書局.
- 『논어(論語)』. 2005. 北京: 中華書局.
- 『맹자(孟子)』. 2005. 北京: 中華書局.
- 『맹자집주(孟子集注)』. 2005. 北京: 中華書局.
- 『사기(史記)』. 2006. 北京: 中華書局.
- 『예기(禮記)』. 2005. 北京: 中華書局.
- 『좌전(左傳)』. 2007. 北京: 中華書局.
- 『한비자(韓非子)』. 2007. 北京: 中華書局.
- 『후한서(後漢書)』. 2009. 北京: 中華書局.
- 거짜오광(葛兆光). 2001. 『中國思想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거츄엔(葛筌). 2003. 『權力牽制理性: 士人, 傳統政治文化與中國社會』.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 구더몽(顧德融) · 주순룽(朱順龍). 2001. 『春秋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동슈예(董書業). 2006. 『春秋史』. 北京: 中華書局.
- 동홍리(董洪利). 1997. 『孟子研究』.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 렌지위(任繼愈). 1999. 『中國哲學史』. 北京: 人民出版社.
- 뤄윈유(呂文郁). 2007. 『春秋戰國文化史』. 上海: 東方出判中心.
- 리우장용(劉江永). 2009. “管子的霸業思想.” 『王霸天下思想及啓迪』.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리우쩌화(劉澤華). 1992. 『中國古代政治思想史』.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 \_\_\_\_\_. 2004. 『先秦士人與社會』.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리우쩌화(劉澤華) · 왕마오허(汪茂和) · 왕란중(王蘭仲). 2005. 『專制權力與中國社會』.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 리종궈이(李宗桂) 저. 이재석 역. 1997. 『中國文化概論』. 서울: 東文選.
- 리황성(李晃生). 2006. 『儒家的社會理想與道德精神』. 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 바이쇼우이(白壽彝). 1994. 『中國通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쉬계링(徐杰令). 2004. 『春秋交邦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쉬크첸(徐克謙). 2007. 『先秦思想文化論札』. 北京: 中華書局.
- 쉬홍루(徐鴻儒). 2005. 『中國海洋學史』.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 양관(楊寬). 2003. 『戰國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왕푸취(王浦劬). 1995. 『政治學基礎』.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웨이정통(韋政通). 2006. 『中國思想史』.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 유화칭(余華青). 2006. 『權術論』.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자오당신(趙鼎新) 저. 샹장치(夏江旗) 역. 2006. 『東周戰爭與儒法國家的誕生』.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장다이니엔(張岱年). 2005. 『中國倫理思想研究』.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 장우쩌(張茂澤) · 쟡타이(鄭熊). 2003. 『孔孟學術』. 西安: 三秦出版社.
- 장추안시(張傳璽). 1991. 『中國古代史綱(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장펀티엔(張分田). 2004. 『中國帝王觀念-社會普遍意識中的“尊君-罪君”文化範式』.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저우시펀(周時奮). 2006. 『走向統一的帝國-春秋戰國的群雄角逐』.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관원란(范文瀾). 1964. 『中國通史簡編』. 北京: 人民出版社.
- 페이샤오통(費孝通). 2006. 『中國紳士』.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ABSTRACT>

## Reductionism Critique on the Spring and Autumn Warring States Period Hegemonic Order of the Alliance

PARK Byoung Gu  
Tsinghua University

“Being sage inside and Being kingly outside” link From internal to external; From small to large; From domestic to international; From home to the world. Reductionism explains by combine constitute elements. That is, Internal forces makes external results. Mencius consider that concept of monarch is the most important independent variable. “Being sage inside and Being kingly outside” of Mencius only stress on the role of monarch to the system, but not consider influence of system to the monarch concept.

This article propose two issues in order to research reductionism on the alliance of Spring and Autumn Warring States period hegemonic order. Firstly, Alliance is whether the necessary condition or sufficient condition to realize hegemonic system stability? Secondly, Why Mencius in the reductionism point of view criticize uneven development of hegemony system? This article Firstly, On the hegemonic security condition of the alliance analysis b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Secondly, On the reason of Spring and Autumn Warring States period uneven development explain by “Being sage inside and Being kingly outside” thoughts.

- **Key Words:** Spring and Autumn Warring States Period, Being Sage Inside and Being Kingly Outside, Confucianism, Hegemonic Order, Reductionism